

소울레거시 레벨컨셉 - 폐허가 된

왕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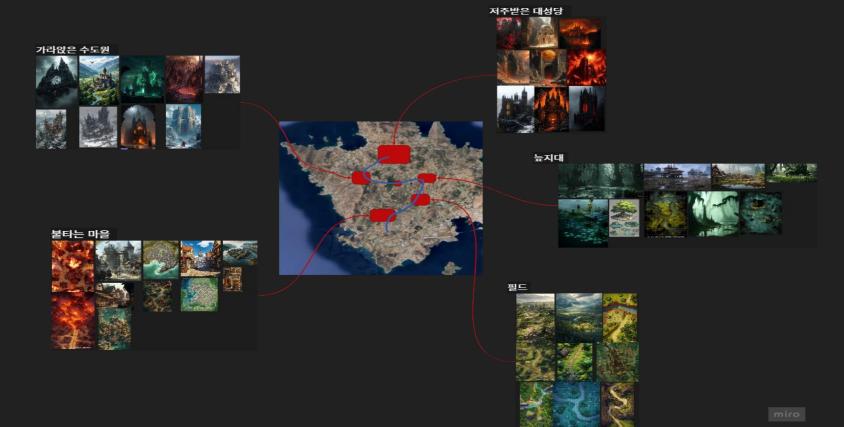


목차

- 1.맵의 테마와 설정
- 2.불타는 마을
- 3.필드
- 4.늪지대
- 5.가라앉은 수도원
- 6.저주받은 대성당

1.맵의 테마와 설정

평면도



2.불타는 마을







컨셉 배경

불타는 마을은 한때 인간들이 정착해 살던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다. 하지만 '소울의 빛'이 어둠에게 잠식되면서, 마을은 비탄에 잠식된 괴물들에게 침략당한다.

이 마을은 플레이어(영혼운반자)가 처음 발을 디디는 장소이자, 세상의 몰락과 주인공의 운명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첫 장면이다.

기획 의도

튜토리얼 + 첫 보스 레벨

플레이어가 전투, 탐험, 스태미나 관리, 회피 시스템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

몬스터 난이도는 낮지만 군중전의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 초반에는 플레이어가 스스로 전투 방식을 탐색하도록 오픈 튜토리얼 형식으로 구성.

3.필드



컨셉 배경

불타는 마을이 몰락하면서 그 주변을 지탱하던 농지와 초원도 황폐해졌다. 한때는 평화로운 순례길이었으나,교단의 군대가 늪으로 향하는 길을 막으며 전쟁터가 되었고,이후 죽은 자들이 깨어나 이 땅을 배회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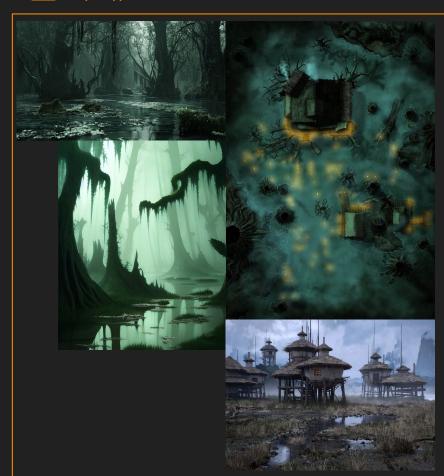
기획 의도

탐험의 확장

이전 구역인 불타는 마을이 튜토리얼이였다면, 필드는 플레이어에게 시야의 확장과 탐험의 자유로움을 제공.

주요 랜드마크를 배치해 자연스럽게 방향을 유도. (순례자의 언덕 → 무너진 성벽 → 늪지대 입구)

4. 늪 지 대



컨셉 배경

마을 북쪽의 숲을 지나면 끝없이 펼쳐진 독성 늪지대가 나타난다.한때 이곳은 교단의 순례길이었으나,교단의 추종자들이 제물을 바치며 소울의 힘을 오염시킨 의식을 반복하면서 늪은 서서히 부패한 독성 늪으로 변했다.

기획 의도

1.환경을 통한 공포와 압박감

늪에 빠지면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스태미나 회복 속도**가 느려짐. 늪지대 자체가 플레이어에게 **지속 피해(독)**를 줘서 긴장감 유지. 길을 잃기 쉽도록 시야를 제한하고, **불빛(횃불)**으로 경로를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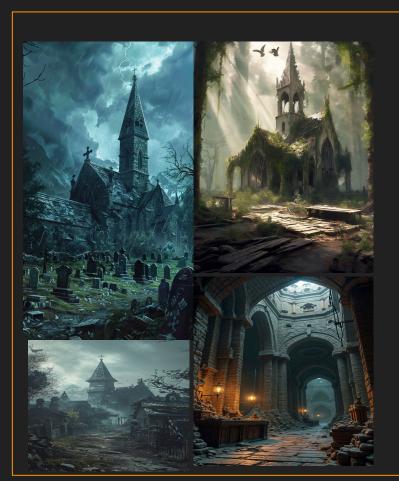
2.전투 + 탐험의 혼합

전투보다 **환경과 생존 관리**가 중심. 몬스터가 늪의 지형을 활용해 플레이어를 기습. 탐험을 통해 숨겨진 아이템을 찾거나 **소울의 조각**을 획득 가능.

3.스토리 단서 배치

부패의 원인이 **교단의 제사**였음을 보여주는 흔적을 곳곳에 배치. 늪 속에 반쯤 잠긴 교단의 제단 → 이후 '가라앉은 수도원'과 연결.

5.가라앉은 수도원



컨셉 배경

이곳은 과거 교단의 중심지였던 성스러운 수도원이었다.그러나 교단이 금단의 소울 의식을 반복하면서수도원전체가 늪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아 폐허가 되었다.

기획 의도

1.내러티브 중심 던전

플레이어가 교단의 비극을 직접 목격하고 "왜 이 세계가 몰락했는지"를 체감하도록 설계. 과거의 기록을 통해 최종 보스가 누군지 암시.

2.수직적 탐험

상층부(예배당) → 중층부(수도사 숙소) → 하층부(연구실)로 이어지는 구조.

곳곳에서 물이 차오르는 구역이 있어 **산소 관리와 시간 제한 탐험** 제공.

3.전투와 퍼즐의 균형

단순 전투뿐만 아니라, 수도원 장치 퍼즐을 풀어

문을 열고 다음 층으로 이동

5.저주받은 대성당



컨셉 배경

대성당은 원래 소울의 빛을 모시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였으나,교단의 수장이 금단의 의식을 행하며 어둠의 소울과 융합되었다.그 결과, 대성당은 뒤집힌 신전처럼 변형되어벽과 기둥이 뒤틀리고, 성스러운 빛은 검게 오염되었다.

기획 의도

저주받은 대성당은 **게임의 최종 레벨**이자, 핵심 주제를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플레이어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스킬, 전투 패턴, 탐험 경험을 총동원** 해야 하며.

플레이어가 미로같은 대성당 안을 탐험하며 적들을 물리치고

최종보스를 만나도록 유도합니다.